



지역별 소 · 돼지 출하동향

등급판정결과를 통해 지역별 출하 · 도축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는 2000년 1월~12월, 돼지는 2000년 7월~12월의 전국 등급판정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동자료의 지역구분은 등급판정이 실시된 도축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소

1. 품종별 출하동향

(단위 : 두,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계
한우 (%)	63,598 (59.9)	126,642 (65.8)	60,871 (85.5)	54,706 (88.0)	101,018 (90.2)	69,214 (89.5)	88,719 (91.9)	108,545 (93.4)	138,866 (90.3)	1,843 (38.4)	814,022 (82.0)
젖소 (%)	42,231 (39.8)	65,656 (34.1)	10,279 (14.4)	7,404 (11.9)	10,887 (9.7)	8,043 (10.4)	7,645 (7.9)	7,609 (6.5)	14,860 (9.7)	429 (8.9)	175,043 (17.6)
육우교잡 (%)	320 (0.3)	246 (0.1)	77 (0.1)	46 (0.1)	75 (0.1)	97 (0.1)	147 (0.2)	44 (0.0)	142 (0.1)	2,533 (52.7)	3,727 (0.4)
계 (%)	106,149 (100.0)	192,544 (100.0)	71,227 (100.0)	62,156 (100.0)	111,980 (100.0)	77,354 (100.0)	96,511 (100.0)	116,198 (100.0)	153,868 (100.0)	4,805 (100.0)	992,792 (100.0)

도축두수중 한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82.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59.9%로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젖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39.8%, 인천·경기가 34.1%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육우·교잡우가 차지하는 비율이 52.7% 였다.

2. 한우 성별 출하동향

(단위 : 두,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계
암 (%)	19,588 (30.8)	51,423 (40.6)	31,560 (51.8)	41,383 (75.6)	74,534 (73.8)	37,589 (54.3)	73,989 (83.4)	21,218 (19.5)	111,359 (80.2)	286 (15.5)	462,929 (56.9)
수 (%)	29,576 (46.5)	66,779 (52.7)	27,771 (45.6)	12,396 (22.7)	26,186 (25.9)	31,096 (44.9)	13,285 (15.0)	82,716 (76.2)	26,565 (19.1)	1,205 (65.4)	317,575 (39.0)
거세 (%)	14,434 (22.7)	8,440 (6.7)	1,540 (2.5)	927 (1.7)	298 (0.3)	529 (0.8)	1,445 (1.6)	4,611 (4.2)	942 (0.7)	352 (19.1)	33,518 (4.1)
계 (%)	63,598 (100.0)	126,642 (100.0)	60,870 (100.0)	54,706 (100.0)	101,018 (100.0)	69,214 (100.0)	88,719 (100.0)	108,545 (100.0)	138,866 (100.0)	1,843 (100.0)	814,022 (100.0)

한우의 성별 도축동향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육류소비 경향이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암소의 도축비율은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이 각각 83.4%와 80.2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 지역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76.2%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우 거세우는 68.3%가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도축되고 있는 것을 통해 볼때 거세우의 소비는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돼지

○ 성별 출하동향

(단위 : 두, %, kg)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계	
상	암	310,171	818,934	53,483	302,956	214,846	233,822	197,613	303,783	508,958	102,272	5,090,972
	(%)	(65.6)	(47.2)	(43.0)	(42.1)	(44.5)	(44.7)	(48.3)	(48.9)	(49.7)	(47.2)	(48.0)
	수	27,349	60,369	14,878	22,315	19,715	14,451	23,183	87,167	45,331	9,019	559,542
(%)	(5.8)	(3.5)	(12.0)	(3.1)	(4.1)	(2.8)	(5.7)	(14.0)	(4.4)	(4.2)	(5.3)	
내	거세	135,113	854,394	56,125	394,815	248,057	274,771	188,023	230,780	469,230	105,185	4,946,985
	(%)	(28.6)	(49.3)	(45.1)	(54.8)	(51.4)	(52.5)	(46.0)	(37.1)	(45.8)	(48.6)	(46.7)
	계	472,633	1,733,697	124,486	720,086	482,618	523,044	408,819	621,730	1,023,523	216,476	10,597,499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거세율	83.2	93.4	79.0	94.7	92.6	95.0	89.0	72.6	91.2	92.1	89.8	
도체중	75.1	77.4	76.5	73.3	76.5	71.6	73.6	72.3	72.8	78.4*	74.3	

주) 도체중은 박피도체를 기준(제주도는 탕박)으로 하였으며 E등급은 제외하였음.

돼지도 지역에 따라 성별 출하동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종모돈의 도축비율은 대체로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종모돈의 도축 및 소비가 대부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모돈의 출하동향을 알 수 있는 E등급 비율은 대구와 부산지역의 도매시장이 각각 15.6%와 1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돼지의 거세율은 전북지역이 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94.7%, 경기 93.8%, 충남 93.3%, 제주 92.1%, 경남 91.9%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각각 47.3%와 76.8%의 낮은 거세율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도체중은 경기 78.2kg, 대전 78.0kg, 강원 76.5kg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전북과 대구가 71.6kg로 가장 낮아 지역별로 최대 6.6kg의 차이가 났다.